

순천시의 친환경 지역농업과 생태관광

최 덕 립

순천시청 관광진흥과장



순천시의 친환경 지역농업과 생태관광

최덕림 과장 (순천시청 관광진흥과)

1. 서 론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 순천

순천이라는 지명은 고려 충선왕 2년(1310년)에 처음 등장하여 700년의 세월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이름이다. 순천(順天)이라는 지명에서 느껴지는 온화하고 느슨한 자연의 풍경은, 나지막하고 완만한 능선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지형 분지와 도심을 유유히 흘러가는 옥천과 동천의 흐름,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비옥한 농지 그리고 이런 지형적 흐름의 완결체로서 생명의 땅 순천만이 만들어낸 정서이다.

이러한 자연 지형적 특성이 가져온 물산의 풍요로움은 학문과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예부터 이곳을 교통과 행정, 상업, 교육, 문화의 거점적 지위를 유지 해오게 했다.

옛 것을 살피되 옛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참고하여 새것을 만들어내는 발상의 전환 '변례창신(變例創新)'의 경영마인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만의 색깔과 향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라는 순천(順天)의 지명이 갖는 의미처럼 순천시 행정의 방향은 자연환경에 대한 기존 개발위주(환경파괴)의 세계관을 지양하고 도시의 생태적 건강을 유지하며,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환경경영관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노관규 시장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를

지향하며 교육과 문화, 교통, 복지, 주거, 환경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구상은 2007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적 비전 제시로 구체화되었으며, 2003년 습지보호지역 제3호, 2006년 랍사사이트 제1594호,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1호 지정된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만 하는 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천의 고유 자연환경을 통해 새로운 생태관광 시장을 개척하는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론 1

아! 순천만의 꿈 / 지역경제 활성화의 블루오션 생태관광과 순천만

조선소나 산업단지의 유치,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등 기존 개발방식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에 봉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빚어진 인명·재산피해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삶을 윤택하게 할 경제부문도 동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만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광보다 약 1.5배 정도 소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수한 생태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자원화가 경제적 효과 창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30%이상 증가하는 국내·외 생태관광객 수요 급증에 따른 국내 흡수 대안이 부족한 현재 생태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생태관광의 주무대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에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싸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내만이다. 행정 구역상 전라남도 순천시와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에 걸쳐 있다. 보통 순천만이라고 하는 지역은 동천하구지역에 만입된 작은 만과 갯벌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강하구와 갈대밭, 염습지, 갯벌, 섬 등 다양한 지형과 생물의 종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변 육지에는 논(간척지)과, 염전, 갯마을, 양식장(옛 염전터), 낮은 구릉, 산 등이 인접하여 있다.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과 해안가의 나지막한 산이 함께하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순천만의 특징이다.

21세기 남해안시대 순천만은 지리적·생태적 중심으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순천만의 세계화를 위해 람사르총회 기념 세계 습지 NGO대회와 공식방문지 지정, 국제습지연대(Wetland Link International) 아시아 지역회의, 연안국제심포지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추진과정에서 세계화의 가능성과 그 가치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선진모델로 조성하고자 한다. 개발을 앞세우기보다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7년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고, 순천만 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내외 환경단체와 MOU 체결로 환경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토지이용에 있어서 순천만과 발원지를 연결하는 동천수계를 '중심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핵심보전지역과 전이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인근지역을 도시계획과 연계 7,738,880 m² 면적의 생태보전지구 및 668,360m²의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발론자들의 무차별적인 환경훼손을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차단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였다.

순천만 핵심지역 소재 식당들과 주거시설의 이전, 오리사육장 보상철거 등 순천만 갯벌 인근 음식점 3개소와 환경 저해시설 10개소를 정비하였고, 탐방객 차량 출입제한을 위한 농경로 폐쇄, 낚시어선 보상, 강하구 지역내 옛물길과 매립지 및 농경지의 습지복원,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완벽한 순천만의 설계도는 아니지만 순천만의 이용에 있어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태관 주차장부지 22,000m²와 99,885m² 사토장(재경부 소유였으나 순천시 10억에 매입)등 순천만 생태습지 복원 사업은 순천만 생명의 지경을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장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순천만을 구성하는 자연자원의 다양성만큼 이곳에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도 다양하다. 민원도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영역도 많다. 순천시는 민선 4기 출발과 함께 희망순천 2020 로드맵 완성과 함께 순천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순천만을 선택하였고,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순천만 관련 11개부서 업무를 통합 행정직과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수산직, 환경직, 조류 전문직 등 필요한 직능계열을 배치하여 One-Stop 체계구축으로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담하게 했다.

그리고 지역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 정책 자문기구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2007년 4월에 구성 및 출범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계 관련 각종 정책자문, 지역주민 의견 수렴,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 공익사업, 대한민국 명품 생태환경 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우리시는 우리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하여 순천만의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 캐릭터 개발, 상품화, 생태자원의 콘텐츠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행운과 행복, 가족애를 상징하는 흑두루미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시조를 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2007년 10월에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순천만 브랜드화 결과 순천만을 찾는 생태탐방객이 2002년 10만명에서 2006년 70만명, 2007년 180만명, 2008년 262만명이 방문하였다. 이는 2008년 기준 약 1,000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에는 800만명의 관광객이 순천만을 방문할 예정으로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체계적 추진은 2011년 10월 완공목표인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사업비 443.6억원)는 현 순천만 자연생태관에서 약 5km 후방 오천문화공원 일대에 습지생물생태관, 인식증진·체험관과 생태관광정원, 자연정화습지 등의 생태기능을 갖추며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륙 습지와 갯벌 습지를 동시에 체험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환경 브랜드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시에는 국·내외 생물생태 전문가와 생태탐방객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 순천만의 국제적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될 것이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심의 홍수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류지 조성과 연계되어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하고 순천만과 연계되어 녹색산업(수목+화훼+정원)과 생태관광으로 지역경제 부가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론 2

친환경 지역농업을 통해 본 순천만 생태관광

순천만은 그리 크지 않지만 한 지역에서 생태계형의 다양성(ecosystem diversity)과 생물 서식지 다양성(habitat diversity)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순천만은 하천의 기수역과 염습지, 넓은 갈대밭, 갯벌 등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 연안습지로 220종의 새들이 기록되었고, 그 중 25종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 조류들이다. 매년 겨울이면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민물도요, 큰고니, 흑부리오리 등 수천마리의 물새들이 월동한다. 봄·가을에는 민물도요, 중부리도요, 청다리도요, 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개평,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등과 같은 수많은 도요물떼새들이 시베리아-호주 간의 이동경로상 중간기착지로 이용한다.

이러한 생태환경 보전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동천과 이사천의 수질환경개선을 통해 갯벌 생물상의 보전과 그에 따른 실용적 콘텐츠 활성화가 생태관광의 주요 관건이다.

순천시에서는 동천과 이사천의 하구지역에 위치하는 순천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유입천의 주변 농경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5호 관련 순천시 순천만 및 주암호 일원 21,900,000㎡(총사업비 317억원)에 달하는 지역을 순천시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 지정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체계를 위한 생태기반을 조성 및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2009년 1월 기준 134개 단지, 24,678,835㎡), 친환경농산물 정보화 및 협의체 설립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을 감싸고 있는 인근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의 농토를 대대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대체하여 현재 825ha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가 무농약으로 영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농법에서 발생한 질소, 인 등의 화학물질이 유입하여 순천만 유입하천의 수질환경을 악화시켰으나 순천만 일원 친환경을 통해서 지금의 글로벌 생태관광 선진 모델 순천만의 자연환경 기반을 점증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1읍면·동 1특품사업과 연계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센티브, 친환경농자재, 컨설팅 도우미 등 환경 친화적 정책사업으로 실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민·관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한 생태계 서식지 보호활동과 그로 인한 순천만의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이다. 순천만자연생태관 주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지원단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2개단 33명으로 구성된 친환경 영농지원단은 순천만 일원 친환경영농지원, 전신주 철거 농지 양수작업, 철새먹이주기, 무논습지관리, 겨울철 경관작물 파종 및 관리, 유색벼 모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2008년 78,157㎡ 경관농업으로 시작해 2009년 580,522㎡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 생태관광의 대표 콘텐츠인 두루미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전신주 282본을 철거한 농지에 양수작업 활동과 들판 디자인으로 순천만 생태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주민에게는 소득을,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행정은 콘텐츠 개발을 연계하는 협력적 관광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58ha에 달하는 경관농업지구 내 전면적 무농약 친환경농업을 추진시 960천원/10a의 영농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들녘에 순천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관도안(대지아트, 2008년 달을 문새, 2009년 흑두루미)을 통해 순천만을 방문하는 생태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2008년 344ha(벚짚존치 298, 보리경작 46) 계약에 이어 2009년 390ha 벚짚존치와 연계해 녹색실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지역농업과 연계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활동으로 2007년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 결과(2007년 1월 환경부 주관 조사)에 의하면, 관찰된 종수는 50종이었으며, 개체수는 11,523마리이었으나 2008년 10월 ~ 2009년 3월 기간 중 123종 19,401개체수로 증가하였다. 그중에는 멸종위기종(환경부 지정) I 급 3종, II 급 19종과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분류 적색목록 7종, 두루미류(흑두루미 342, 검은목두루미5, 재두루미1, 시베리아흰두루미1 등)350개체가 관찰되어 친환경 영농기반을 통한 순천만 생물다양성(50종→123종)은 생태관광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결론

순천만의 미래적 가치와 비전

순천만은 사계절에 걸쳐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생태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 미래의 가치로 만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이룰 수 있다. 그 사례로 순천만의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는 생태계적 안정적 기반인 친환경농업으로 현명한 보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자연을 최대한 존중하는 생태관광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다.

생태관광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것이다. 순천시에서 추진 중인 순천만습지보호지역에서 도심방향으로 5km 물러나 건립될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프로젝트나 하천 주변 습지복원 등의 계획은 생태관광의 동선흐름을 분산시키고, 핵심지역에 대한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 역점 추진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순천의 생태관광이 선진모델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순천만 주변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물서식지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농업과 관광이 어떻게 상호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오랫동안 순천만 주변의 갯벌과 하천주변에는 대대포구를 비롯하여 화포, 와온, 학동, 해룡 등 많은 부락이 형성되어 자연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먹을거리와 재화를 얻고 살아왔다. 사람과 철새, 갯벌, 갈대가 공존해온 순천만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세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 균형을 깨지 않고 녹색생활(친환경농업)과 녹색관광(생태관광)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의 가치는 충분히 경제와 환경이 연결될 수 있는 미래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